

ILED NEWSLETTER

The official newsletter of iLED,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ISSUE

01

교육공학연구회
동계워크숍 개최

02

교육공학연구회 및
신입생 동계스터디

03

ILED 졸업생 근황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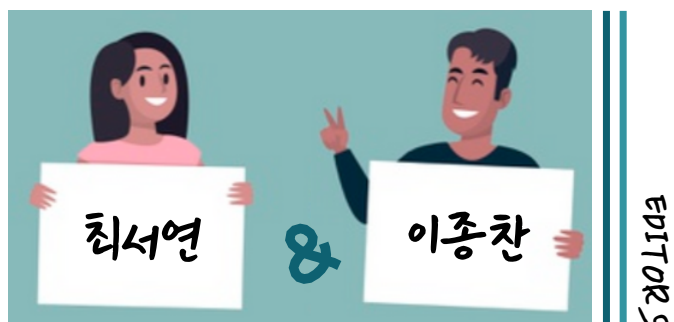
ILED 신입생 소개

Editor's Note

by Editor 이종찬, 최서연

안녕하세요? iLED 3월호 뉴스레터 제작을 맡은 석사과정 이종찬, 최서연입니다. 1~2월에 있었던 다양한 행사, 졸업생 근황 및 신입생 소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석사과정 신입생(5명)에 대한 소개 내용을 다루고, 박사과정 신입생(2명)에 대한 소개는 다음 호에 실을 예정입니다.

꽃 피는 새봄! 3월이 찾아왔습니다. 봄의 설레임과 함께 봄맞이로 분주한 3월! 우리의 몸과 마음에도 봄 새싹이 돋아나듯 새로운 기운과 희망으로 가득 차길 기대해 봅니다. 기분 좋게 3월을 향해 힘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01 교육공학연구회 동계워크샵 개최

1.21.~1.22.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1월 21일(화)~22일(수)에 교육공학연구회의 동계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워크샵에서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대관령 양떼목장에 가서 양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용평스키장에 도착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기도 하고 스키, 볼링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인 알펜시아 리조트에 돌아와서는 선배 졸업생이신 허선영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교육공학의 이슈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신입생 자기소개 및 주제별 퀴즈대회를 진행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각 연구실 별로 모임을 가지며 입학 동기나 향후 연구 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02 교육공학연구회 및 신입생 동계스터디

2020.1.8.~2.26. 매주 수요일



교육공학연구회 동계스터디

기간: 2020.1.8.~2.26.

시간: 매주 수요일 11시

장소: 11동 311호

1월 8일부터 시작한 교육공학연구회 동계스터디는 매주 수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임철일 교수님, 조영환 교수님의 주요 논문 추천리스트를 토대로 발제와 토론을 통한 활발한 스터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학교 측에서 집단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여, 안타깝게도 동계 연구회 스터디는 개인별 자습 및 발제파일 공유로 대체하였습니다.

신입생 동계스터디

기간: 2020.1.8.~2.26.

시간: 매주 수요일 12시

장소: 11동 311호

1월 15일부터 신입생 동계스터디를 시작하였으나,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불가피하게 개인별 자습 및 발제파일 공유로 대체하였습니다. 교육공학 전공의 대표적인 서적인 DICK & CAREY 의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원서를 탐독하며 전공 신입생으로서 전공지식의 기초를 닦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Chapter 1 -
Introduction to Instructional Design

What is A SYSTEM ?

- Definition: A system is technically ①a set of interrelated parts, all of which work together toward a defined goal. The parts of the system depend on each other for input and output, and the entire system uses feedback to ②determine if its desired goal has been reached. If it has not, then the system is ③modified until it reaches the goal.
- ② 체계적(systemic) vs 체계적(systematic) ('교육방법의 교육공학적 이해', 임철일)
- 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ISD)
 - 교수 설계(ID)의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systemic한 접근을 취함
 - includes the human component and are therefore complex and dynamic.

II. 개념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 Designs)

- 개발한 교수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
- 종합평가, 총괄적 평가의 형태임.
- 일대일 평가(one-to-one), 소집단 평가(small-group evaluation), 현장작용(field trial)의 세 가지 기본

III. 형성평가 설계

1. 설계

- 문제가 어디서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 필요
- 교수 프로그램이 교수전략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수전략을 참조체제로 사용
- 교수전략, 질문, 교수

03 iLED 졸업생 근황

2020.1.18. 박사졸업생 축하 만찬

지난 1월 18일 서울대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선희, 한형종 선생님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임철일 교수님과 박사과정 졸업생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선희, 한형종 선생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집 1

김동호 선생님 소식

2011.3.~2013.2. iLED 석사과정



대학원은 언제 졸업하셨나요?

iLED 연구실에서 2011년에 석사과정을 시작하여 2013년 졸업 후 바로 그 해에 UGA 교육공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2017년 5월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UG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2017년에 Northern Illinois University에 교육공학과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8년까지 1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부터는 University of Florida의 교육공학 전공 조교수로 임용되어 2020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3월 부터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

교육학과 학부생으로 재학중에 임철일 교수님의 교육공학 전공수업을 듣고 처음 이 분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교육학도로서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중이었는데, 교육공학 수업에서 강조되었던 체계적 접근법, 교육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육학과 의 다른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모호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교육학 이론과 경험들을 실제 연구와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교육공학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학부 과정만으로는 교육공학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박사 공부까지 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겨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과 교육공학 전공(iLED)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제가 석사과정 동안 iLED 에서 쌓은 프로젝트 경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현재까지 연구하는데에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현재 교수로서 다양한 개발연구, 데이터 분석 연구, 융복합적 협업을 함에 있어서 당시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배웠던 것들이 현재 저의 연구자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iLED에서 공과대학간 화상강의 설계, 공대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연구에 참여 하였는데, 이론의 탐색부터, 실제 실행까지 모든과정을 빠르게 습득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공학의 핵심영역인 개발연구의 전 과정을 실제로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현재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 설계에도 당시에 배운 것들을 발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심사 및 연구분야는 무엇인가요?

다형식 (Multimodal)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을 적응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개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지닌 교육학 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이나 엔지니어적 개발 역량을 지닌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한 역량들을 교육학적 배경과 잘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대학이나 기업체등과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제가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하여 배우고 체득한 내용들이 제가 예상한대로, 혹은 그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구현될때 뿌듯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최신의 테크놀로지 동향을 파악하고 신기술들을 끊임없이 습득하면서도 교육학자로서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던 분석학, 머신러닝같은 개념들이 이제 시스템 설계나 개발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되었고, 근래에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과 같은 개념들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학자의 역할은 단순히 이러한 기술들을 쫓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술이 교육 시스템에 가지고 올 새로운 변화와 제한점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심도있게 탐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외국 유학을 꿈꾸게 되셨나요?

교육공학을 평생 공부하고 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분야의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석사과정 당시 영어 논문들을 읽으면서, 유학이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연구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선택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 외국생활을 할 때 느낌은 어떠셨나요?

영어에 크게 자신이 없었고, 함께 타지 생활을 헤쳐나가야 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처음 1년 동안은 수업시간에 발표 한 번 하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박사과정 초반에는 학교 수업 이외의 소셜 활동에 참여 하지 않았는데, 2년차 부터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주최하는 행사나 영어 회화 교실, 종교 활동 등에 참여 했습니다. 미국 교육공학 (AECT) 학회에서 만난 다른 유학생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미 한인 교수님들로 좋은 조언들을 얻으면서, 점점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 해야한다는 강박때문에 더 움츠려들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외국어 사용에서의 실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나서 좀 더 영어 실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외국 유학을 꿈꾸는 후배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미국교수로서 박사 학생들의 어드미션을 심사해본 결과, 지원자는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문제없이 과정을 이수하고 꽤 많은 교육공학 연구자로서 졸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영어점수와, 학점 같은 산술적인 부분들은 꼭 최소 이상을 채우십시오. 그 이상 받으면 좋지만, 다른 준비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높은 점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일관되게 관심을 가져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점수를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석사 과정 동안, 꾸준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학술대회 발표나 논문을 발표했다는 점을 이력서에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자들은 대개 이력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자기소개서 (Statement)를 검토 후 인터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Ph.D 지원자들 에게는 졸업 후 연구자로서 평생 이 전공과 연관된 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 점수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교육공학의 어떤 영역에 몸담아 왔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어필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보다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공부중인 현역 학생들이나 그 프로그램에 있는 미국 교수와 가까운 친한 교수님들께 질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 유학 꿀팁이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군데에서 박사 어드미션을 받았다면, 펀딩이 가장 중요합니다. 펀딩이 100% 확실하고, 대형 프로젝트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학하신 후에는, 자신의 첫 논문을 최대한 빨리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렵고 좌절을 느낄 수 있으나, 모자르게나마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외국 유학 후에 현재 성균관대학교로 오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성균관대학교에 부임하게 되셨나요?

일단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나고 자라온 한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 해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주립대들이 글로벌하게 연구를 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주마다 상이한 교육시스템, 특정 대상의 학생층과 특정 과목에 대한 연구 지원 집중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물론 귀국을 결정하기 까지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협업이 점차 용이해지고, 한국의 교육공학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더라도 세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었습니다.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연구 역량들로 한국 교육공학의 발전과 부흥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LED 소속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iLED는 저에게 친정같은 곳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보다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다면 연락주세요.



특집 2

정다운 선생님 소식

2016.3.~2018.2. iLED 석사과정



대학원 졸업부터 현재까지의 근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iLED 연구실 석사 졸업생 정다운이라고 합니다. 졸업 즈음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졸업 이후 반년간 영어공부 및 대학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그 해 여름부터 미국 출국 전까지는 우리 전공 선배님인 치과대학 이지현 교수님이 계신 치학연구소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어떻게 박사 과정 유학을 결심하게 되셨나요?

대학원을 다니며 논문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저와 잘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디펜스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또다른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막연히 언젠가는 박사 학위를 받고 싶어질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사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일과 교육공학 전공(iLED)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요?

저는 현재 플로리다주립대 Educational Psychology & Learning Systems 내 Instructional Systems & Learning Technologies 프로그램 박사과정 2학기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교수설계를 비롯해 온라인 학습, 멀티미디어학습, 학습분석 등 교육공학 전공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의 관심사 및 연구분야는 무엇인가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학습, 온라인학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는 소셜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networked knowledge activity에 대한 연구,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커리큘럼 개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거나 어려울 때는 언제인가요?

수업과 과제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처음 외국생활을 할 때의 느낌은 어떠셨나요?

학부 시절 뉴저지로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곳 플로리다 주립대가 위치한 도시는 그곳과 비교했을 때 건물, 도로, 시설 등 많은 것이 낙후되어 있어 처음에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아직 차가 없는데, 이곳은 셔틀버스 외에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학교 외에 다른 곳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확실히 한국이 살기가 더 편하고, 모든 것이 더 발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보다 안 좋은 것을 찾기 시작하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곳의 좋은 점들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H마트는 없어도 작은 베트남, 중국, 한국 마트가 있어서 웬만한 한국 음식은 만들어 먹거나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것을 먹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플로리다 사람들은 아주 친절합니다.^^ 마트에서도 식당에서도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외출하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 플로리다의 온화한 기후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언어장벽, 문화차이 등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교환학생 때도, 지금도 느끼는 것은 이곳 사람들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언어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으로 인해 내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하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어색하게 대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결국은 언어가 아닌 그 태도로 인해 여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어의 유창한 정도가 분명 공부도 인간관계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도 실전에선 잘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요. 그밖에도 유튜브 영어 공부 채널을 구독하고 영어단어장도 만들어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학을 꿈꾸는 후배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님과 학교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 분야를 찾기 위해서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공 수업을 통해 교육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토픽과 최근의 트렌드를 알게 되며 지금의 연구 관심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의 주제를 박사과정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유학을 준비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연구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유학 꿀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인터넷을 많이 뒤져봤던 것 같습니다. 지원시기에는 관심 교수님 홈페이지나 SNS를 들어가 무슨 연구를 하시는지 확인했고, 고우해커스나 여러 블로그에서 정리해놓은 유학 지원 절차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또 유학 선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iLED 소속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사 과정 2년이 제 삶에서 지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함께 할 좋은 연구실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대학원생활도 응원합니다! iLED 연구실 파이팅!!

